



GIST(광주과학기술원) 보도자료

<http://www.gist.ac.kr>

보도 일시

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.

보도자료

홍보팀 김효정 팀장

062-715-2061 / 010-3644-0356

담당

홍보팀 이나영 선임행정원

062-715-2062 / 010-2008-2809

자료 문의

한국문화기술연구소 박나래 담당

062-715-4921

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, AR 도슨트 시범서비스 운영

- AR 글래스를 이용한 착용형 증강현실 콘텐츠로 관람객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전시체험 제공 기대... 내달 3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

- GIST(지스트, 총장 김기선) 한국문화기술연구소(소장 전문구,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)가 10월 28일(월)부터 11월 3일(일)까지 증강현실(AR) 기술을 활용해 전시 유물 감상을 돕는 ‘AR 도슨트’ 시범서비스를 국립중앙박물관(신라실)에서 운영한다.
 - 본 서비스는 AR 글래스(홀로렌즈)를 통해 착용형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전시 콘텐츠 체험을 제공한다. 관람객은 AR 글래스를 착용하고 신라시대 유물들에 관한 다양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흥미롭게 체험하며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.
- AR 도슨트는 미술관·박물관의 시공간적 제약 및 기존 도슨트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, 증강현실(AR)을 통해 유물의 맥락과 정보를 전달하고 차별화된 감상을 도움으로써 관람객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체험을 선사하고자 연구·개발되었다. 실제 전시공간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문화기술 선도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현장 피드백 접수 및 사용자 평가를 통해 연구결과를 더욱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이다.
 - AR 도슨트는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연구과제 <AR글래스 기반 도슨트 운용을 위한 지능형 UI/UX 기술 개발>(주관연구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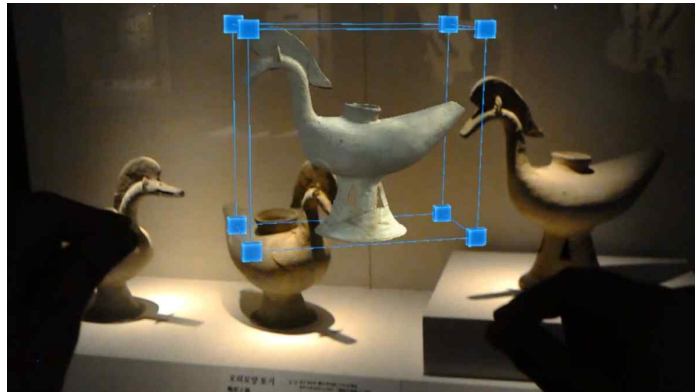
임자 이규빈)의 연구성과물로서,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, GIST 융합기술원, (주)버넥트, (주)퍼펙트스톰이 공동 연구·개발하였다.

- 본 시범서비스는 관람객 주도적 인터랙션 설계로 사용자 몰입도를 높였다. 지능형 대화처리 챗봇 기술 및 립싱크 기술 적용으로 역사 속 인물과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.
 - 유물 만져보기, 유물 관련 정보보기, 유물 원형 복원하기, 역사 속 인물과 대화하기, 다른 관람객과 체험 공유하기, 좋아요 남기기 등 다양한 UX 유형의 AR 콘텐츠 체험이 가능하다.
- AR 도슨트는 박물관·미술관 등 전시환경에 특화된 현장 맞춤형 문화기술 응용사례로서,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의성과 활용성이 높은 미래형 문화서비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
 - 또한 공공 문화자원을 VR·AR 콘텐츠화함으로써 실감형 문화향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제3차 문화기술 R&D 기본계획(문화체육관광부 2019.1) 방향에도 부합하며 현장 수요 맞춤형 AR 기술 적용 선구사례로서 AR 도슨트가 향후 다양한 전시환경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주관연구책임자인 GIST 이규빈 교수(융합기술학제학부)는 “최근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인공지능, 증강현실, 디지털 트윈 등 최신 기술의 접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”면서 “본 시범 서비스는 이러한 최신 기술에 더해 관람객들이 유물들을 더욱 몰입감 있게 감상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증강현실,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이 도우미 역할을 잘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”고 밝혔다.
- GIST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AR 도슨트 서비스를 정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 <끝>

[사진 설명]



▲ [사진 1] AR 글래스를 착용하고 AR 도슨트 서비스를 체험하는 관람객



▲ [사진 2] 유물의 3D 모델을 손으로 잡고 움직여보는 AR 도슨트 체험 화면



▲ [사진 3] AR 도슨트 체험 중의 다양한 증강현실 콘텐츠 화면